

●●● 유한진 우성사료 양계PM · 축산기술사

지금도 도전은 즐겁다



해마다 사양관리 책이 발행되는 양돈과는 달리 아직까지 양계분야에서는 사양관리 단행본의 출시가 많지 않아 양계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

본회에서는 유한진 필자와 함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산란계 사양관리 단행본'을 출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지는 19년동안 양계산업 다방면에서 활동했으며 축산기술사이자 우성사료 양계PM으로 활약중인 유한진 필자를 만나 단행본 출판 배경과 그의 청사진을 들어보았다.

단행본을 발간하면서

유한진 필자는 19년간의 현장(필드) 경험을 바탕으로 양축가들을 위해 산란계 사양관리 지침서를 발행하게 되었다면서 첫 말을 시작했다.

천호를 시작으로 한양, 조인 등 현재 우성사료

양계PM까지 양계산업 다방면에서 활동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양관리 단행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동안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결국 산란계 사양관리 지침서를 완

성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발간한 산란계 사양관리 단행본은 400페이지 분량으로 산란계 전기간에 걸친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산란계 특수관리, HACCP, 바이오시큐리티 등 현실에 맞는 새로운 내용도 수록되면서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독서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추후 미흡한 내용은 보완하여 개정판도 계획하고 있다.

끊임없는 목마름

이번 산란계 사양관리 단행본을 출간하게 된 이유 역시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목마름의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양계분야를 업으로 시작하면서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고 싶어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성을 지니기 위해 노력했다.

한 업무만을 고집하여 정체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주경야독으로 축산기술사를 준비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축산기술사는 필드에서 얻은 경험과 이론을 조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목마름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이자 설레임으로 다가와 자신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가장 보람된 일

양계업을 입문하고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2003년 1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살처분한 농가의 보상을 도와준 일이라고 한다. 당시 수당 3,500원이던 보상가격이 너무 낮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현실성 있는 보상가로 올리기 위해 양계협회 및 양계인들과 함께 밤잠을 설치며 보상가를 수당 7,401원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생산원가 근거자료를 만들어 준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보상규정을 버리고 새로운 보상규정을 만들은 물론 이후 산란계 살처분 보상



▲ 단행본 표지

의 이정표를 만드는데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보람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최고의 컨설팅을 꿈꾸며

그는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영양학 분야에 대한 학문도 꿈꾸고 있다고 말하며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을 내비쳤다. 그의 최종 목표는 과학적인 이론과 현장 경험의 조화를 가진 양계분야 최고의 컨설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양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험들과 새로운 학문을 접목하여 발전시켜야 이전보다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말하며, 오랫동안 양계업을 해오는 농장에서 자신만의 경험만을 고집하여 새로운 학문을 멀리하는 농장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유한진 필자는 새로운 학문과 축정된 경험들이 계속해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면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 선진기술을 조화시키는 메신저로서 최고의 양계 컨설턴트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강조하면서 양계산업 전문가를 향한 강한 신념을 보여주었다. (정리 | 기영훈 기자)